<u> 나민촌, 유엔 학교, "인도주의 구역"까지 가자지구 전역 연일 폭격</u>

엘은 가자 대회 닷잣 즛다하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벌여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구역", "안전지대"도 공격의 대 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3일 칸유니 스 알마와시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100명을 살해했습니다. 사상자수는 400여 명에 달합 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구역"라며 피란 민들을 이곳에 몰아 넣어 왔습니다. 그래놓고 는 2000파운드급(900킬로그램) 초대형 폭 탄들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겨냥했다 고 하지만, 사망자들은 이스라엘이 벌여 온 학 살을 피해 피란 온 민간인들입니다. 피란민들은 건물도 아닌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민촌의 유엔 학교들을 연신 폭 격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열흘 동안 적어도 학교 8곳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 습니다. 가자지구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모든 생명을 말살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9개월 동안 팔 레스타인인 3만 8345명을 학살했습니다. 어 린이 최소 2만 1000명이 실종됐습니다. 가자 주민 5명 중 1명은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모든 구호활동을 막고 구호품 반입을 봉쇄해 수십만 명의 가자 주민 들이 구호품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세이브더칠드 런 등 국제 구호단체 11곳도 이스라엘군이 조 직적으로 구호를 방해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스라엘 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낸 항공 폭탄과 미사일 은 3만 발에 달합니다. 칸유니스 난민촌 학살 직전인 7월 10일에 바이든 정부는 500파운드 폭탄을 이스라엘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종 학살 공범입니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기술협력 행사 '이노베이션데이'를 국내에서 개최했습니다. 학살 국가와의 협력은 당장 중 단돼야 합니다.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 76년 동안 이스라 엘의 점령에도 굴복하지 않아 왔습니다.

최근 요르단과 예멘 등 아랍 곳곳과, 학살 지원에 앞장서 온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그 어느 때보다 잔 학해지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와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굳건하고 강력히 이어져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팔레스타 인 연대 집회와 행진에 참가해 주십시오. 가자

지구 주민들은 한국에서의 연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의 식민 점령에서 벗어나 독립과 해방을 이루 기를 바라면서 '집중 행동의 날'이 열릴 예정 입니다. 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정의 로운 평화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

66우리를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지지 하고 우리의 생존권, 안전할 권리, 자 유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나와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가자지구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지지 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 가자지구 주민 아스마 씨가 한국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산이 되듯이 여러분의 행동이 만들어 낼 변화는 끝 이 없을 것입니다. >>

- 재한 팔레스타인인 마르얌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집회와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국내 시민사회단체 **43곳이 함께합니다.**(2024. 7. 19. 현지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인스타그램과 웹페이지에서 여러 지역의 집회 소식과 가자지구 주민 메시지 등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Israel is bombing entire Gaza for days targeting refugee camps, UN schools, even 'Humanitarian zones'!

STOP Genocide Now!

Israel has been massacring Palestinians in massive air strikes across the Gaza Strip.

'Humanitarian zones' and 'safe zones' have also been targeted. On 13th July, Israel bombed the Khan Younis al-Mawassi refugee camp, killing at least 100 people. The casualty toll is over 400. Israel has been herding refugees into the area, calling it a 'humanitarian zone,' and then dropping massive 2,000-pound (900-kilogram) bombs.

Israel claims to have targeted senior Hamas figures, but the dead are civilians fleeing Israel's massacres. The refugees were living in tents, not even buildings.

Israel has been repeatedly bombing UN schools in the refugee camp.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eight schools have been attacked by Israeli forces in the last ten days. Nowhere in Gaza is safe.

Israel wants to eradicate all life in Gaza. Israel has massacred 38,345 Palestinians in the last nine months. At least 21,000 children have gone missing. Over 20% of Gazan go entire days and nights without eating.

UN has condemned the Israeli military of blocking all relief efforts and preven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Gazans from receiving any aid at all. Eleven international aid organisations, including Medicins Sans

Frontiers and Save the Children, have also condemned the Israeli military of systematically obstructing relief.

Nevertheless, the West, including US, is fully supporting Israel. In the past nine months, the US has sent 30,000 aerial bombs and missiles to Israel. On 10th July, just before the massacre in the refugee camp,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it would send a 500-pound bomb to Israel. The US government is an accomplice to genocide.

Meanwhile, Korean government recently held a technology cooperation event with the Israeli government in South Korea. Cooperation with the genocidal state must stop immediately.

Palestinians have refused to give in to Israeli occupation and atrocities over the past 76 years.

The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is still going strong, with recent mass protests in Jordan, Yemen, and elsewhere in the Arab world, as well as in the US and UK, whose governments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supporting the genocide.

As Israel's genocide is getting more brutal than ever, efforts to defend the rights and lives of Palestinians must be even more determined and powerful.

Join the Palestine solidarity protest and

march in Gwanghwamun every Saturday. The people of Gaza are gaining hope and courage as they listen to the voices of solidarity in Korea. On 15 August, National Liberation Day, there will be a 'Day of Action' in the hope that Palestinians will achieve independence and liberation from Israeli colonial occupation. We sincerely hope that all those who oppose the genocide and want a just peace for Palestine will join us.

19th, July, 2024

Voice of Palestinians

"We ask you comrades not to forget us and to always keep coming out to support us and to support our right to live, to be safe, and to be free. All greetings and love from here Gaza to you and your kind support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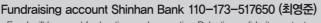
- Asmaa, Palestinian in Gaza

"Since mountains are formed of gravel, what you are doing can be magnified infinitely!"

FREE PALESTINE FREE PALESTINE

-Mariam, Palestinian in Korea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Stop Genocide Now

Hosted by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